

2024. 5. 17.(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1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지훈

02-2133-7440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4쪽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하정

02-2133-7442

매일 아침 목소리 · 수어로 뉴스 읽어준다.. 서울시, 장애인전자신문 발행

- 장애인시설에 보급하던 종이신문, 장애인 당사자 스마트폰·이메일로 매일 아침 제공
- 저시력·고령자위한 큰 글씨는 기본, 읽어주는 뉴스·수어 뉴스도 제공.. 맞춤형 정보제공
- 복지정책, 사회 복지뉴스, 일자리 정보 등 담아.. 구독자 선착순 3천명 모집 중 무료 보급

- 그동안 장애인 시설이나 기관을 방문해야만 볼 수 있었던 장애인 대상 신문을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저시력자·고령자를 위한 큰 글씨는 기본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읽어주는 뉴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뉴스도 제공한다. 발행주기도 격주 1회에서 주중 매일(월20회) 받아볼 수 있다.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 서울시는 1000여개 장애인시설과 기관에 보급하던 장애인 대상 종이신문 3종(약 12면)을 종이 2종, 전자 1종으로 세분화하고 대상도 시설은 물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으로 확대한다고 16일(목) 밝혔다. 전자신문은 시범적으로 3천 명의 장애인(가족)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 ‘장애인신문’은 장애인복지정책, 사회·복지뉴스, 장애인 일자리 정보 등을 담은 전문지로 2018년부터 장애인 시설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무료로 제공 중이다. 현재 발행중인 한국장애인신문·서울복지신문·장애인신문 3종 중 한국장애인신문이 전자신문으로 변경된다.

□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전자신문은 주중 아침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다. 매일 5~7분 가량 뉴스를 읽어주고 하단 텍스트로 표시된 기사를 누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가능하다.

□ 특히 종이신문은 불가능했던 시각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읽어주는 뉴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여주는 수어뉴스(7월 도입)’ 제공해 독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 장애인 전자신문은 한국장애인신문 누리집(<https://www.koreadisablednews.com>)이나 전화(070-4148-3000 / 02-2133-7966),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등록 장애인과 보호자, 관내 장애인 복지관, 보호시설 및 작업장, 협회 및 단체 등이며 선착순 3천 명 마감한다.



※ 구독신청 링크: <https://www.koreadisablednews.com/com/kd.html>

□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정책과 뉴스는 물론 다양한 사회소식 등이 담긴 신문을 종이는 물론 전자신문으로 다양화해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읽어주는 뉴스, 수어로 보여주는 뉴스로 장애인 접근성 확대하고 더 많은 뉴스 전달로 일상의 불편을 덜어 주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해하는

장애인 전자신문 사용방법

장애인 전자신문은 복지정책, 사회 복지 뉴스, 장애인 일자리 정보, 교육지역행사 소식, 장애인 인식개선 웹툰 등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매일 아침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카카오톡 (또는 문자)

1. 매일 아침 카톡 또는 문자로 오는 전자신문의 '뉴스레터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제일 상단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5~7분간 전자신문을 들려드립니다.
3. 텍스트를 클릭하면 주요 뉴스들의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1. 매일 아침 이메일로 오는 전자신문을 클릭합니다.
2. 제일 상단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5~7분간 장애계 주요 뉴스 및 복지정책을 들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전자신문 무료 구독 안내

복지정책 사회·복지 뉴스 장애인 일자리 정보

교육·지역행사 소식 장애인인식개선 웹툰 등

장애인 전자신문은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매일 아침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전달 방식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

발행

월 20회 / 매일 발행 (평일 기준)

특징·장점

- ☑ 서울특별시 권역 내 지역뉴스를 중점적으로 보도
- ☑ 발행 주기가 짧아, 지역행사 소식을 행사 이전에 알림
- ☑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이미지, 음성, 동영상 콘텐츠 제공
- ☑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고령자 위한 '🔊 읽어주는 뉴스' 제공
- ☑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 보여주는 뉴스' 제공 예정 (7월)

신청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등록 장애인 및 그 보호자
- 서울특별시 관내 장애인복지관, 보호시설 및 작업장, 협회 및 단체 등

접수

· 온라인 접수 | www.koreadisablednews.com/com/kd.html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문의

한국장애인신문 ☎ 070-4148-3000



QR코드 스캔해서
온라인 접수